

# 펫로스 반려동물의 죽음



**차 상 훈**  
 세종동물병원 원장  
 footnote@naver.com

2013년 1월경 펫로스 반려동물의 죽음이란 책을 접하게 됩니다. 이책의 지은이는 리타레이놀즈라는 작가로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미국인입니다.

이책은 우리 수의사가 접하는 전형적인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 토끼 뿐만 아니라 농장에서 볼수 있는 오리나 염소, 또한 유해동물인 쥐에 이르기 까지 동물의 종류와 목적과 상관없이 작가의 풍부한 감수성과 상상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과 경외심에 바탕을 두고서 작가가 경험했던 실화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짧은 지면을 통해서 저자뿐만 아니라 독후감상문을 기술하듯이 써 내려가기에는 뭔가 조잡해보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편법을 동원하여 중요한 포인트를 번호로서 나열해보았습니다.

## 1. 왜 이책을 읽게 되었는가?

우리 수의사에게서 안락사란 피할수 없는 중요한 행위에 속해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 안락사를 행하여 왔지만, 수의사가 바라보는 안락사와 일반인, 특히 고객들의 입장에서 안락사는 그 생사의 온도차이 만큼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합니다. 그리하여 안락사는 반려동물 임상수의사인 내가 왜 해야하는지, 어떤 생각의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지, 또한 안락사는 어떤 시각에서 볼때 가장 적절할 것인지의 대한 물음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상 수의사로서 반려동물 치료의 마지막의 단계에서 선택이란 안락사 뿐만은 아닐것이라는 생각으로 있었기때문입니다.

## 2. 안락사 그 피할수 없는 마지막 선정?

대다수의 수의사들은 안락사가 치료방법이 없는 동물들에

게 마지막으로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 수의사가 행하는 최선의 행위라는데 이견이 없을거라 봅니다. 저 또한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작가인 리타 레이놀즈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미국인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선진국이라서 안락사에 대한 개념도 우리나라 보다 비교적 개방적인 것 같습니다. 작가는 수많은 동물 농장의 가족들에 중한 병이 걸린 동물에게는 거의 매번 안락사를 선택 목록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락사가 실행되는 시간은 언제나 제가 생각하는 시점보다는 늦었습니다.

작가는 동물들은 자신이 안락사가 필요할때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시점을 기다리다보면 반려동물의 주인은 그시간을 잘 알수 있다고 합니다. 수의사의 권고시기나 다른 사람들의 예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동물이 시기를 알려줄 때 그때가 바로 안락사를 행해야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안락사를 결정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안락사를 권유하시나요? 가지고 있는 기준은 있으신가요? 안락사 이전 시간에는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수의학적 치료과정이 수의사로서 최선일까요?

## 3. 동물들을 위한 호스피스?

호스피스(hospice)란 치료 가능성이 거의 제로인 상태에서 의미없는 무리한 치료라던가 단순한 생명 연장처치가 아닌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과 동물에게 남은 삶이 안정되고 평화롭게 일생을 마감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책에선 호스피스의 개념을 동물들에게도 많이 적용하는데 작가

는 안락사 이전단계에서 병들고 그들의 수명이 다해가는 동물들에게 호스피스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또한 그 수단조차 여러 가지로 이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플라워 에센스 라던지, 뉴에이지 음악이나 불경에 나오는 반야밀다 심경등을 이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색상을 이용하기도 하며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허브나 자연 음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4. 안락사, 호스피스?. 그리고 수의사

10여년동안 임상수의사 생활을 하면서 스쳐 지나거나 가슴속에 묻어왔던 많은 이야기를 가진 아이들, 그 단편들을 하나 하나 끄집어 내어서 기억하다보면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이 책 역시 몇몇 이야기들은 가슴이 먹먹해지고 가끔은 눈시울이 붉어 지기도 하였습니다.

각각의 단편마다 어김없이 수의사는 등장을 하고 수의사의 권고에 따라 안락사를 하기도 하고 작가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 때를 기다리기도 하며, 마지막의 평온을 위해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기다리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나는 경제적으로 혹은 다른 이유로 병들고 아픈 가망없는 동물들에게 마지막의 달콤한 아이스크림보다 아픈 주사와 쓰디쓴 약의 투약을 수의사란 이유로 강요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행여 마지막을 치달아 가는 아이들에게 수의사로서 호스피스의 의미와 방법, 통증제어의 기회를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겠습니다.

#### 5. 생활환경이 다른것인가 가치관이 다른것인가?

미국하면 생각나는 이미지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거대자본주의, 넓은 영토, 서양식 합리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우리 수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려동물선진국 정도가 되겠죠.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적은 영토, 동양적가치, 빠른 성장, 공동체 의식, 또한 동물 경시풍조? 종종 사람이 먼저지 개고 양이가 먼저냐? 하며 언성을 높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개나 고양이 같은 하찮지 모를 동물들에게도 자비와 배려를 하는 사회가 동물들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기에도 좋은 사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식용견이란 말이 멀쩡하게 사용되는 나라이기도 하니까요. 이 책에 나오는 농장에서 많은 동물들과 영키며 그들과 대화하고 살아

간다는건 어쩌면 우리나라에선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닐 겁니다. 작가처럼 수많은 동물가족들에게 동물병원을 찾아 치료하고 정성을 다해 지출을 한다는 것 또한 우리나라 대다수의 정서하고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수의사에 대한 사회적 처우와 존재감도 부럽구요.

제가 거주하는 여기도 사실 서울, 부산등지와 비교하면 시골이지만 저 보다 더 시골지역에서 가끔 개가 아프다고 치료를 받으러 오십니다. 수술예기가 나오고 곧잘 비용예기가 나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서 개 치료하는데 30~40만원쯤 나온다고 동네가서 예기하면 동네사람들 다들 미쳤다고 예기한다고 영수증엔 5만원으로 표시해달라고 합니다. 이런분이 많이 계시더군요. 자기 개를 치료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치료해야하는지, 아직 동물복지후진국이죠.

#### 6. 대화하지 않으면 이해도 없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수의사, 하물며 소동물 임상수의사중에서도 펫로스에 대한 감정을 이해한다고 자신할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겁니다. 주위의 동료들중에서도 완치할 수도 없는 병을 왜 치료할려는지, 발발이 한 마리에 저리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그런 불소통의 말들을 종종 듣고는 합니다. 물론 수의사라고 모든 경우에 작가와 같은 무안한 경외심과 종교적인 믿음이 들어있는듯한 행동을 전부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본인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타인들에게 큰 소리로 우는 것조차 이상한 시선으로 보거나 심신이 약해 보이는 사람으로 치부되버리니깐요.

가족같은 반려동물을 잃고 나서 느끼는 감정을 100%이해할수 없다 치더라도 그들의 감정과 상실감을 이해할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 7. hospice의 철학

hospice란 셸틱어로 번역하면 soul friend란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영혼의 친구란 말이겠네요.

호스피스에는 세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 medical care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다른증상, 변화와 합병증, 불필요한 고통을 제거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하며 관찰하는게 첫째이며, 이 부분은 임상수의사들이 제공

해야할 서비스 한분야가 될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의 보살핌입니다.그들의 vital sign,신체 조건의 상태나 변화,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안락하게 보살펴 주는 것이 두 번째이며

셋째는 그들의 보호자와의 관계입니다.보호자들과의 관계와 고통스러울수 있는 삶의 마지막 길에 대한 안내이며,죽음이란 태어남과 같이 삶의 긴 여행중의 일부분임을 서로 나누며 공감하는것이 세 번 입니다.

아래 글은 미국의 한 인터넷에 올라온 hospice의 제공 내용입니다.

- ◆ Being with you to formulate a plan for this journey. Because each pet is unique, each of the plans is uniquely built to suit your needs.
- ◆ Teaching you the signs to look for as your companion passes from one stage to the next in the final journey.
- ◆ By providing veterinarians and trained staff to care for your pet in their own comfortable surroundings, thereby avoiding difficult and often painful transport to a clinic.
- ◆ Daily phone calls and/or home visits to check in on you and your beloved companion and monitor changes.
- ◆ Home evaluations to see what adjustments can be made for the pets comfort and day-to-day activities.
- ◆ Providing to you, the education and support in end-of-life care, symptoms and pain management.
- ◆ Making available to you professionally trained medical pet sitters that can stay with your pet when you need to be away from home.
- ◆ A staff of counselors and clergy, available to talk with you anytime, by phone or in your home.
- ◆ Providing 24-hour support when you have questions, concerns or fears

◆ If desired, alternative treatments are also available, such as holistic massage, Reiki, acupuncture, flower essence and other holistic remedies

## 8. 마치며..

동물병원을 경영하면서 사실 무심히 지나쳐 갔을 수많은 동물들...

그 수많은 동물들이 각자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 집니다.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수의사로서 때로는 경제적 이유만으로 그들 앞에서 가식을 내세우기도 하고,그들 동물보다는 그 주인의 애기와 눈치를 보기도 했으며,초등학교 아이들의 직업선택이유를 질문받으면 마음과는 거리가 먼 동물치료의 보람이니,사회에 이바지니,국민위생에 힘쓰다니 하는 말로 본질을 숨기려했던적도 있습니다.

또한 아픈 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려 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보잘 것 없는 의학적 시도를 위해,혹은 일푼의 가치를 위해 그 아이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킨적이 있기도 합니다.

이 책의 말미로 가면서 저는 내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를 들어내면 나름대로의 동물병원 수의사로서의 행동과 마음가짐에 대한 정립이 될것같아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동물병원 경영에 대한 가치관은 다 다릅니다.또한 우리나라는 그 차이를 서로 인정할수 있는 환경이 이미 되었으며 강요할수도 없습니다. 다만 대상이 동물이므로 동물에대한 또한 그 동물의 긴 삶의 여정에 마침표가 될부분에서 좀더 많은 고찰이 있었으면 합니다.♥

